

경영권 분쟁에도 흔들림 없는 성장... 美 11조 투자 승부수

K-산업 돋보기

고려아연 '새로운 도약'

세계 비철금속 글로벌 1위 기업 고려아연이 전략적 투자를 단행하며 글로벌 초일류 소재 기업으로 거듭나는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그 중심에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흔들림 없는 경영 의지와 내부 구성원들의 믿음이 자리하고 있다. 특히 미국 테네시주에 11조원 규모 통합 비철금속 제련소를 짓겠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한국 제조 기업이 글로벌 공급망 요충지에 거점을 확보하는 파격 행보도 이어가고 있다. 고려아연의 이같은 전략이 빛날지 아니면 빛으로 남을지 업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고려아연의 성장동력인 최윤범 회장의 '트로이카 드라이브' 전략과 미래 비전을 3회에 걸쳐 분석해 본다. (편집자주)

◆ 첨단산업 분야 핵심광물 포트폴리오 확장

고려아연은 MBK·영풍연합과 2022년부터 경영권 분쟁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흔들림없이 성장곡선을 그리고 있다. 최근 MBK·영풍연합은 고려아연 신사업 투자와 관련해 실적과 재무 상태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신사업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앞줄 가운데)이 미국 현지 직원들과 함께 제련소 시설을 직접 둘러보고 있다.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트로이카 드라이브' 구상 제련업 넘어 미래 성장동력 모색 비철금속 제련소 등 대규모 투자 글로벌 초일류 소재 기업 체질개선

순항하고 있다.

고려아연은 아연과 연, 구리 등 기초금속 뿐만 아니라 금·은 등 귀금속과 안티모니·인듐 등 핵심광물로 포트폴리오를 확장하는 데 투자를 집중했다. 시장 상황에 좌우되지 않는 체력을 키우기 위함이다.

특히 고려아연은 이같은 역량을 바탕으로 미국 테네시주 제련소 건설 사업 '프로

젝트 크루서블'에 미국 정부 등의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고려아연이 테네시 제련소에서 생산할 핵심 품목은 총 13종이다. 이 중 11개가 미국 정부가 지정한 '핵심 광물'이다. 반도체·방산·인공지능(AI) 등 산업의 필수 소재들이다. 구체적으로 아연, 연, 구리 등은 자동차·건설·전자·가전·배터리 부품 기초 소재로 사용된다. 안티모니, 게르마늄, 갈륨, 인듐, 비스무트 등은 반도체, AI, 양자컴퓨팅, 첨단 무기 체계의 필수 소재다. 금, 은, 팔라듐, 텔루륨은 정밀 전자 부품 및 차세대 태양광 패널에 쓰인다.

기존 투자를 통해 키워온 신사업도 성

과를 기록하는 등 공급망 다각화 노력이 빛을 발하고 있다. 고려아연은 신재생에너지·그린수소, 이차전지 소재, 자원순환을 축으로 하는 '트로이카 드라이브' 전략을 선언하고 이에 대한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 '트로이카 드라이브' 성과 가시화

최윤범 회장이 이끌고 있는 트로이카 드라이브에 대한 구상은 호주 지회사 SMC에서 운영 중인 태양광발전소 건설에서부터 시작했다. 2014년 SMC 사장으로 부임한 최 회장은 당면 과제인 적자 해소부터 업(業)의 특성상 부과되는 전력 소비량과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친환경 경영전략을 추진했다. 비용 절감은 물론 글로벌 트렌드에 발맞춘 발전을 이끌어냈다. 만성 적자를 흑자로 전환시킨데 이어 2018년에는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냈다.

친환경 경영으로 건설된 SMC 태양광발전소는 고려아연의 신재생에너지 전환 프로젝트의 첫 성공 사례로 기록됐다. SMC는 태양광발전소 건설로 사용전력 25%를 자가발전으로 충당하고 있다. 2020년 전 세계 대형 제련소 중 최초로 RE100에 가입하면서 오는 2040년까지 필요전력 100%를 신재생에너지로 조달하겠다고 선언했다. SMC가 위치한 호주는 고

려아연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린수소·그린암모니아의 생산·공급 인프라 구축에 거점 역할을 한다.

트로이카 드라이브는 최윤범 회장이 2022년 취임한 이후 채택한 미래 성장 전략이다. 이같은 투자 성과가 발현되기까지 통상적으로 3~4년 걸린다는 점에서 2025년 상반기 신사업 실적을 통해 고려아연은 성과를 검증하고 있다. 고려아연의 신사업 매출 비중은 지난해 상반기 기준 29% 수준까지 확대됐다. 특히 자원순환을 맡고 있는 미국의 자회사 페달포인트는 지난해 흑자전환에 성공한 이래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매출 6조 720억원, 영업이익 7461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58.4%, 영업이익은 175.2% 증가했다.

업계 관계자는 "고려아연이 제련업만으로 성장하는데 한계는 분명히 있다"며 "배터리 소재·리사이클링·신재생에너지 투자를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미국 제련소 등의 프로젝트는 고려아연의 위상이 한층 강화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원 기자



ysw@metroseoul.co.kr



LS일렉, 신뢰·상생 기반 북미사업 고도화

한국전 참전용사 지원사업 후원 채용 등 지역사회 연결고리 강화

"위대한 기업은 뛰어난 역량으로 세울 수 있지만, 세대를 잇는 신뢰는 진심으로만 쌓을 수 있다"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사진)은 23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오늘날 우리가 미국 시장에서 확고하게 뿌리내릴 수 있는 바탕에는 자유와 평화를 위해 피땀 흘린 유타주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다"며 미국 사업 확대의 기반으로 신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구 회장이 언급한 신뢰의 출발점은 75년 전 한국전쟁 당시 경기도 가평에서 벌어진 전투다. 당시 유타주 출신 청년 장병 240명은 약 4000명 규모의 중공군 공세를 단 한 명의 전사자도 없이 막아내며 '가평의 기적'으로 불리는 승전을 이끌었다.

LS일렉트릭은 2022년 미국 유타주 시더시티에 위치한 LS일렉트릭 유타를 인



수한 뒤 대규모 증설을 추진하며 현지 생산 기반을 확대해 왔다. 구 회장은 이 과정에서 가평 전투의 역사를 접하고 사업 경쟁력뿐 아니라 역사적 유대와 지역사회 신뢰가 미국 시장 안착의 핵심이라고 판단했다.

LS일렉트릭 유타가 자리한 시더시티 일대에는 참전용사 가족과 후손들이 남아 있으며 지역사회 안에서도 한국전쟁의 기억이 이어지고 있다. 구 회장은 이 같은 유대를 LS일렉트릭의 북미 사업 기반이 되는 유타 지역사회와 한국을 잇는 연결고리로 보고 있다.

LS일렉트릭은 올해 서던유타대학의 한국전 참전용사 지원 사업을 후원했다. 생존 참전용사들이 지난 5월 국내에서 열린 가평 전투 75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했으며, 시더시티 현지에 조성된 한국전쟁 메모리얼 피크

유지·관리에도 힘을 보태고 있다.

구 회장은 "가평의 기적을 만들어낸 영웅들을 기억하고 배우는 것은 기업의 마땅한 책무이며 이러한 굳건한 신뢰 위에 쌓아 올린 현지 사업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성장을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LS일렉트릭은 유타 법인을 북미 전력 시장 공략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고 있다. 현지 생산 기반을 바탕으로 미국 내 전력 인프라 수요에 대응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와의 장기적 관계를 사업 경쟁력으로 연결한다는 전략이다.

현지 인재 육성과 채용 기반 확대도 추진하고 있다. LS일렉트릭은 서던유타대학의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교육시설 건립에 참여해 미래 산업 인재 양성을 지원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주도하는 주한미군 채용 플랫폼 구축 업무협약에도 참여해 한국과 연결고리를 가진 현지 우수 인력 확보에 나서고 있다. /원관희 기자wkh@

LG화학, 반도체 분야 등 R&D 15조 투입

고성장 산업 중심 수익구조 전환

LG화학이 전통 화학 중심의 수익 구조를 반도체·모빌리티·로봇 소재와 항암 신약 등 고부가 사업 중심으로 재편한다. 2035년까지 연구개발(R&D)에 15조원을 투입하고 최고경영자(CEO) 직속 신사업 조직을 통해 실행 속도를 높여 2030년 두 자릿수 영업이익률 달성을 추진한다.

김동춘 LG화학 사장은 22일 타운홀 미팅에서 반도체·모빌리티·로봇 소재와 항암 신약을 핵심 육성 사업으로 제시하고 포트폴리오 고도화 전략을 밝혔다.

이번 전략은 글로벌 공급 과잉과 경쟁 심화로 전통 화학 사업의 수익성이 낮아지는 가운데 고성장 산업 중심으로 수익 구조를 바꾸기 위한 것이다. LG화학은 기존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기술 경쟁력과 고객 기반을 앞세운 고부가 사업 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LG화학은 2035년까지 R&D에 총 15조원을 투자한다. R&D 자원의 약 70%는 반도체·모빌리티·로봇 소재 등 육성 사업에 배분한다. 인공지능(AI) 기



김동춘 LG화학 사장이 22일 타운홀 미팅에서 반도체, 모빌리티, 로봇 등 미래 핵심 사업 육성 전략을 설명하고 있다. /LG화학

반 신규 응용 분야와 선도 기술 확보에도 집중한다. 조달 가능한 자원 범위 안에서 인수합병(M&A) 등 외부 성장 전략도 병행한다. 자체 기술 개발과 외부 역량 확보를 함께 추진해 사업 확대 속도와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김 사장은 "LG화학은 기존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반도체·모빌리티·로봇 소재, 항암 신약을 중심으로 한 미래 성장 축에 역량을 집중해 기술이 강한 컨버팅 회사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삼성전자, UFS 5.0 메모리 솔루션 개발

온디바이스 AI 관련 인프라 선점 속도

삼성전자가 온디바이스 AI 시대 핵심 인프라로 떠오른 모바일 스토리지 시장 선점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삼성전자는 온디바이스 AI 시대에 최적화된 업계 최고 성능의 차세대 UFS 5.0 메모리 솔루션을 업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제품은 반도체 표준화 기구 'JED EC'의 최신 내장 메모리 규격인 'UFS 5.0' 인터페이스를 적용했다. UFS 5.0은 삼

성전자의 첨단 9세대 V낸드(V9) 기반으로 개발돼 업계 최고 수준인 10.8GB/s의 데이터 전송 대역폭과 전력 효율을 동시에 구현했다.

삼성전자 UFS 5.0은 순차 읽기 속도 10.8GB/s, 순차 쓰기 속도 9.5GB/s를 지원해, 기존 UFS 4.1 대비 약 2배 이상 향상되었으며, 대용량 데이터를 더욱 빠르게 저장·처리할 수 있다.

특히 AI 응용 환경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데이터 처리에 최적화돼, 온디바이스 AI 환경에서 데이터 처리 지연을 줄이고

보다 빠른 응답 속도의 AI 서비스를 지원한다.

삼성전자는 UFS 5.0을 가로 7.5mm, 세로 13mm, 높이 0.9mm로 전작 대비 16.7% 작아진 패키지를 구현해 ▲모바일 ▲웨어러블 ▲확장현실(XR) 기기 등의 설계 유연성과 공간 활용성도 높이며, 최대 1TB 용량까지 제공할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올해 4분기부터 UFS 5.0 양산을 시작하여 시장의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향후 플래그십 스마트폰 뿐 아니라 XR 헤드셋, AI 웨어러블 등 차세대 디바이스 시장 성장에 맞춰 UFS 5.0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차현정 기자hyeon@

포스코인터, 5억달러 규모 글로벌 본드 발행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창사 이래 처음으로 글로벌본드 발행에 성공하며 해외 자본 시장 조달 기반을 확대했다.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도 모집액의 4배에 달하는 투자 수요를 확보하며 사업 경쟁력과 성장성을 인정받았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23일 5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본드 발행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채권은 5년 만기 단일 트랜치로

발행됐으며 발행금리는 5년 미국 국채금리에 90bp를 더한 수준으로 확정됐다. 총 주문 규모는 발행액의 4배인 20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이에 따라 최종제시금리(IPG)보다 30bp 낮은 수준에서 최종 발행이 결정됐다.

이번 채권 발행으로 확보한 자금은 기존 외화 차입금 상황과 일반 운영자금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원관희 기자